



# “이순신 돕는 명나라 장수 튀지 않으려고 자제했죠”

영화 '노랑' 등자룡 역 허준호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기억해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합이란 걸 잊은 이 시대예요.”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랑: 죽음의 바다'에 출연한 배우 허준호(사진)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이순신(김윤석 분)을 도와 왜적에 맞서는 명나라 장수 등자룡을 연기했다. 상관 진린(정재영)의 만류에도 병사들에게 “통제공을 지키라”며 적진에 뛰어드는 용감하다.

허준호는 “말하자면 남의 나라에 파견 간 등자룡이 왜 목숨을 걸고 이순신 장군을 도왔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캐릭터를 구축해나갔다고 회상했다.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관계는 혈연뿐이잖아요. 아마도 등자룡과 이순신 장군은 그 정도로 절친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린의 말도 무시하면서 (장군에게) 갔던 거고요. 두 분 다 우리가 떠올려야만 하는 대단한 분들이지요.”

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배역은 부담감 때문에 항상 피해 왔다면서도 ‘이순신 3부작’ 중 한 편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배우로서 큰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랑’ 역시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도망 나갈 구멍이 없나 살펴봤다”고 한다. 대사가 모두 중국어인 점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김 감독이 두 시간 반 동안 시나리오를 설명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저를 완전히 홀려놨어요. 하하. 이순신 장군이 참전한 전쟁에 대해서는 초초 단위로 다 꿰고 있더라고요. 이순신을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믿음이 생겼습니다.”

허준호는 ‘노랑’에 출연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대사

를 통째로 달달 외웠다. 진린을 연기한 정재영과는 촬영장에서 한국말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를 ‘욕심이 많은 배우’라고 한 그는 “웬만하면 만족을 못 하고 (화면에) 더 나오고 싶고, 더 촬영하고 싶어 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랑’은 이순신 장군의 피날레를 담은 작품인 만큼 자신이 돋보이지 않도록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이순신 역의 김윤석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되기도 했다”며 “어떻게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명량’ (2014)과 ‘한산: 용의 출현’ (2022)에서 각각 최민식과 박해일이 같은 역할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2021)를 통해 4개월간 모로코에서 함께 생활한 허준호와 김윤석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허준호는 “배우 생활을 쉬는 동안 (매체에 등장하는) 김윤석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는 좋은 배우”라고 극찬했다.

허준호는 최근 몇 년간 드라마와 영화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 캐릭터를 위해 20kg을 감량할 정도로 배우로서 몸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이 정도 나이에는 보통 작품 수가 줄어드는데, 저한테 대본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렇게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때는 다시는 배우를 하지 않겠다고도 생각했는데 말이죠. 왜 저를 찾아주시는 걸까… 그거까진 궁금하진 않아요. 그저 감사히 여길 뿐입니다.”

/연합뉴스

# 연말 추위 녹이는 K캐럴

10년 전 엑소 ‘첫 눈’ 멜론 1위…성시경 등 역주행



엑소 ‘첫 눈’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캐럴들이 하나둘 음원 차트에 재진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3년 발매된 그룹 엑소의 ‘첫 눈’이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10여년 전 겨울 시즌송의 역주행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엑소 ‘첫 눈’, 챌린지 힘입어 멜론 차트 1위

21일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차트에 따르면 엑소의 ‘첫 눈’은 지난 20일 기준 ‘톱 100’ 차트와 일간 차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멜론 주간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한 트레사림의 ‘퍼펙트 나이트’ (Perfect Night), 에스파의 ‘드라마’ (Drama) 등 경쟁한 곡들을 제치고 주요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이다.

‘첫 눈’은 2013년 발매된 엑소의 겨울 스페셜 앨범 수록곡으로, 떠나보낸 첫사랑을 떠올리는 어쿠스틱 팝이다.

계절감을 반영한 곡 제목과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로 매년 겨울 음원 차트에 등장하곤 했으나, 멜론 ‘톱 100’ 1위를 찍은 건 처음이다.

◇성시경·아이유 등 캐럴 역주행…“신곡 성과는 시간 걸려” 음원 강자로 꼽히는 성시경과 아이유 등의 캐럴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성시경과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VIXX) 등이 참여한 2012년 발매한 ‘크리스마스니가’는 20일 기준 멜론 일간 차트 21위를 기록했고, 2010년 나온 아이유의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는 27위에 올랐다.

이 밖에 이무진의 ‘눈이 오잖아’ (2021),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2017), 다비치의 ‘매일 크리스마스’ (2021) 등도 지니뮤직 일간 ‘톱 200’에 들었다.

새로운 캐럴도 지난달부터 조금씩 발매되고 있다. 그룹 에이핑크는 이달 신곡 ‘핑크 크리스마스’를 발매했고, 에스파는 지난달 캐럴 ‘징글 벨 록’ (Jingle Bell Rock)을 공개했다. 다만 새로 발매된 시즌송들은 주요 차트에 오르는 것 같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캐럴 인기도 여전…머라이어 캐리·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가운데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윌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등 해외 고전 캐럴도 어김없이 국내 차트에 복귀했다.

‘올 아이 윌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1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고, 멜론 차트에서도 ‘톱 100’ 9위에 올랐다.

1994년 발매된 곡이지만 매년 연말 국내외에서 배경음악으로 깔리곤 해 머라이어 캐리의 ‘눈꽃 연금’이라는 별명도 붙은 노래다. 이 밖에도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 미’, ‘라스트 크리스마스’ 등 익숙한 히트곡들이 국내 차트 상위권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 손호준·장나라 6년만에 부부로 ‘크로스’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30일 첫방…성공한 여성 CEO의 행복 찾기

배우 장나라와 손호준이 드라마 ‘고백부부’에 이어 이번에는 심리 스릴러극에서 또 한 번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장나라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이하 ‘해피엔드’) 제작발표회에서 “연기하면서 공부하듯 정말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장나라는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내는 생활가구 브랜드 ‘드레브’의 대표 사재를 연기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자수성가 최고경영자(CEO)이자 100만 팔로워를 갖추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사재원은 계부 장석, 남편 순영, 동료 테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 치의 의심 없이 믿어왔지만, 한순간 믿음이 깨지게 된다. 믿었던 주변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나자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지옥을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 복수를 다짐한다.

장나라는 그는 “가장 믿었던 존재로부터 부정당하는 주인공의 감정선을 연기로 표현해보고 싶었다”며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나 깊은 우울감을 표현해야 하는 장면이 많아서 특히 체력이 중요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손호준 역시 “이렇게까지 많은 감정을 쓰면서 연기한 적은 처음이었다”면서 “이번 드라마는 ‘고백부부’의 연장선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전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난 우리 부부의 인연이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는 식으로 새롭게 풀어진다.”고 말했다.

30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손호준(왼쪽)·장나라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나답게 크는 아이

## 지원사업

###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자·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자·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복지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진화(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